

“방치된 성보문화재 불자들이 지킨다”

7월 19일 대불청·불교문화재연구 ‘폐사지 지킴이 활동’ 현장

“비정 문화재는 어느날 없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해요. 지역 폐사지의 성보가 후대에 전해지는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큼니다.”

“청년회가 탐 앞에 작은 안내판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찾아 뵙고 허락을 받고 싶네요.”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7월 19일, 화성의 관향리 마을 입구에 자리한 석탑 앞에서는 청년 대역섯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화성 용주사 청년회 회원들과 불교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로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진행하는 폐사지 지킴이 활동 차 모인 것이었다.

전국의 폐사지는 5300여 건, 이중 성보문화재가 남아있는 사지만도 220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방치된 상태. 폐사지 지킴이 사업은 지역의 청년불자들과 이런 폐사지를 연계해 보존과 관리, 더 나아가 문화재적 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문가 강연과 함께 청년회 등의 현지조사와 활동 등으로 이뤄진다.

화성 용주사 청년불자들과 관계자들은 용주사 권역 내 9개 사지 중 대표적인 관향

리사지를 방문해 관향리 삼층석탑을 둘러보고 마을 환경을 점검했다.

관향리는 예전부터 탐이 많아 ‘탐상골’로 불리던 마을이었다. 관향리 삼층석탑은 본 석탑의 옥개석과 불상대좌 추정 석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쌓은 새 담부채 등이 뒤섞인 기묘한 모양을 띠고 있었다.

교육관으로 나선 한옥빈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 팀장은 “이런 문화재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조정석

방치된 문화재 보존에 앞장

지역 산재한 폐사지 순례 진행

문화재 전문가 교육도 병행

등으로 망실된다”며 “그나마 마을회관 뒤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하다. 탐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방치된 것보다는 다행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날 폐사지 탐방에 앞서 용주사 천제루에서는 전국 폐사지 보존관리 현황과 망실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지 내 소재문화재의 종류와 함께 훼손 사례 설명 등이 이어졌다. 강연 중간 중간마다 청년회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옥빈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사진 왼쪽)과 용주사 청년회원들이 관향리석탑을 둘러보고 있다.

최준훈 용주사 청년회장은 “청년회 차원 뿐만 아니라 신도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들이 이러한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보존에 도움이 될 듯하다. 안내판 설치 등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폐사지 탐방에 앞서 용주사 천제루에서는 전국 폐사지 보존관리 현황과 망실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지 내 소재문화재의 종류와 함께 훼손 사례 설명 등이 이어졌다. 강연 중간 중간마다 청년회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아졌다. 대가 김봉환 거사는 “지킴이 활동으로 보존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되고 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뤄졌으면 한다. 불교계의 활동으로 문화재가 지정된 경우가 있는가”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연으로 나선 한 팀장은 “보성 개홍사지의 사지 지정과 경주 미탄사지 석탑의 보물 지정 추진 등의 사례가 있다. 흥천 양덕원리사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지만 탐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화성 용주사=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불교학술지, 한국연구재단 평가서 대거 하향

7월 3일 공고 평가결과 5개 학술지 하향·재심 신청

한국연구재단이 7월 3일 공고한 ‘2015년 학술지평가 최종결과’에서 불교계 학술지 8개 중 5개가 평가 하향했다. 평가기준 중 동일기관 투고논문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를 보면 불교학연구회(불교학연구)가 등재학술지로 불교미술사학회의(불교미술사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불교학리뷰)가 등재후보학술지로 발표됐다.

그동안 등재학술지였던 보조사상연구원의(보조사상), 인도철학회(인도철학), 대각사상연구원(대각사상), 한국불교연구원(불교연구)가 등재후보학술지로 변경됐으며, 한국정토학회(정토학연구)는 일반학술지로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번 학술지 평가에서 한국연구재단은 ‘학회’ 전체 논문투고건(국의 포함) 중 동일기관 투고건 비율이 3분의 1 미만일 것’과 ‘대학부설연구소는 동일

기관 투고건 비율이 2분의 1 미만으로 할 것’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불교학계는 학회 대부분이 종합대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불교학 전공자들도 대부분 종합대학에 소속을 두고 있어 동일기관 투고 비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위원장 “이번 학술지 평가는 소수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불교학 연구 전반에 큰 결실들이 될 수 있다. 개별 학회 및 연구원의 문제가 아닌 학계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연구기관은 7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논문 심사는 모두 같은 기준에서 진행됐다. 소수 학문분야의 경우 차년도 사업 시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평양 석탑 반환 요청, 日소유 재단 거부

22일 오쿠라재단 측 밝혀, 일본문화 동조여래입상 손상도 지적

일본 오쿠라 문화재단 측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해문)가 조선불교도종양연맹(조불련)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평양 올리사지 석탑(사진) 반환을 최종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일 수교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7월 22일 도쿄간이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에서 오쿠라문화재단 측은 회답서를 통해 “재단은 동산(석탑)의 소유권을 100년 전에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관리를 해 온 반면 신청원(조불련)은 1945년에 결성돼 1965년 해산됐다가 1972년 재결성된 단체로 100년 전에 재단의 소유가 된 동산에 대해 법률상 하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재단은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불련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위임받은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대표인 해문 스님은 이날 “재판부가 2차 기일을 9월 17일로 정한 만큼 올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한



조정기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올리사지 석탑과 함께 경기 이전 오층석탑 등 약탈 문화재를 남북 공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불련 측은 김순식 변호사는 “북한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첫 번째 문화재 반환 사례”라면서 “법원이 2차 조정기일을 9월로 잡고 오쿠라재단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은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오쿠라 문화재단은 일제강점기 이전 오층석탑과 평양 올리사지 석탑을 총독부로부터 무상 기증받아 소장, 호텔 정원에 전시하고 있다가 지난 4월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노덕현 기자

일제시대 만해와 경호의 현실인식 살핀다

만해학회, 7월 31일 ‘만해 한용운과 허영호’ 세미나 개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만해 한용운 스님과 경호 허영호 스님의 현실인식과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31일 오후 1시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사무실에서 ‘만해 한용운과 허영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 중 한명인 경호 허영호 스님은 1919년 3월 18일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그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의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건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세점수 동시대 교수의 ‘일제시대 허영호의 국내외 동향과 현실인식’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허영호의 1930·40년대 불교계 활동과 동국대’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만해의 대중 불교론과 허영호의 신불교운동론’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만해의 <불교대전>과 허영호의 <불교성전>’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경호 현주의 불교 이해와 원효 인식’ △김도남 서울교대 교수의 ‘<조선어기원론>에 나타난 언어관’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범어사 비로전 및 미륵전, 부산유형문화재로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 비로전과 미륵전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범어사에 있는 비로전과 미륵전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7월 15일 부산시보 등에 고시했다.

범어사 비로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부불전(副佛殿)이다. 처마는 전면만 부연(附椽)을 둔 겹처마이고, 배면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2014년 시행된 비로전 해체수리 때 중도리 밀면에서 발견된 <동래도호부북령군정산범어사비로전상량문(東萊都護府北嶺金山梵魚寺毘盧殿上樑文)>을 통해 1684년에 중창된 건물로 부산 지역에서 현존건물 중 가장 오래된 점이 드러났다.

범어사 비로전은 1684년 중창 때 작성된 상량문이 현재 남아 있고, 주요 구조 부재들도 대부분 중창 당시인 17세기 말(1684년)의 부재를 유지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지역 목조 건축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던 익공식 맞배집의 우수한 사례로 익공식 공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건축 문화재이다.

범어사 미륵전은 대웅전 아래 중정(中庭



범어사 비로전과 미륵전

의 원편에 비로전과 함께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식(翼工式) 맞배지붕 부불전(副佛殿)이다.

범어사 미륵전은 2014년 미륵전 해체수리 때 여간 중도리 기문장처(記文藏處)에 보관된 상량문을 통해 1887년(고종 24)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음이 확인되어 건물의 건립연대가 밝혀졌다.

한편, 부산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목조지장보살좌상 △목조여래좌상 2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함께 지정돼 부산시 소재 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07점으로 늘어났다.

하성미 기자

장충식 교수 10주 추모, ‘동악미술사학’ 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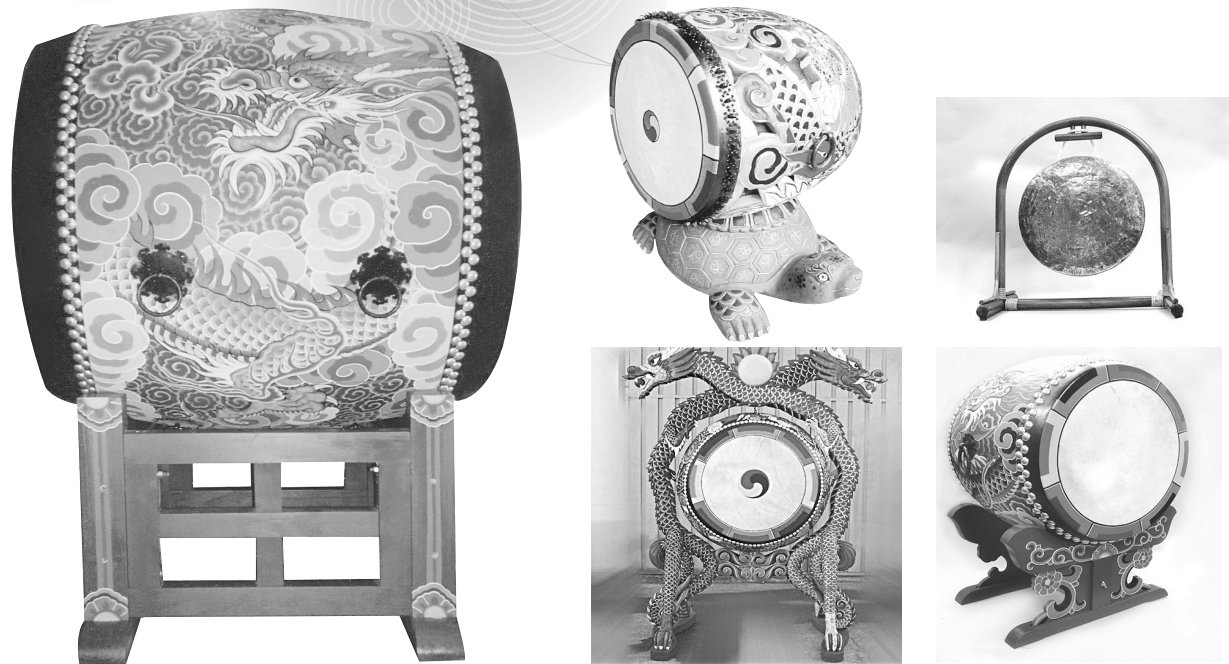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정우택)가 최근 ‘동악미술사학’ 제17호를 펴냈다. 나암 장충식 동국대 전 교수의 영면 10주기를 추모해 만든 이번 호에는 △15세기 왕실 발원 변상판화화와 새로운 도상의 유입(김지현) △19세기 경기지역 신중도 연구(김현중) △한국 근대기 불화에 미친 외래 종교와 미술의 영향(최영) △공민왕 전정작

들에 대한 고찰(이원복) △왕유 시의도를 통해본 조선 문인들의 이상(조인회) △민화 ‘소상팔경도’와 시가문학의 교섭 양상(장계수) △민화라는 용어와 개념의 비판적 검토(윤범모) △돈황 막고굴 제217굴 남북 벽화와 회화성(장희정) △유류 19굴 ‘목련변문변상도’ 고찰(조성금)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